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ournal Evaluation Policy of Korea Research Foundation

장 덕 현 (Chang, Duk-Hyun)**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2. 학문분야별 특성 |
| II. 학술지 평가의 배경 | 3. 평가방법의 문제 |
| 1. 정보유통: 자유 vs. 통제 | 4. 학회운영에 미치는 영향 |
| 2. 인용집중의 원리 | 5. 활용의 문제 |
| III. 학술지 평가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IV. 맺으며 |
| 1. 학문 방법의 다양성 문제 | |

초 록

학술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학술지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학문연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평가는 단순히 학술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평가대상의 효율,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단점을 보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하고, 이 정책이 학술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등재 학술지와 이를 생산하는 학회 그리고 평가의 주체 기관의 권력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주제어 : 학술지, 학술지평가, 학술커뮤니케이션

Abstract

The role of scholarly journals in academic world is widely known and i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tool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larly communication. To do this, reasonable and legitimate evaluation methods are to be designed and to be applied. However, despite a lot of criticism regarding this issue, current journal evaluation policies have not drawn attention in related discipline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some aspects related to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journal evaluation policy. Potential problems are particularly highlighted. It also addresses issues in using such data and tools in evaluating scholarly performance of researchers in academic institutions.

Key Words : scholarly journals, journal evaluation, scholarly communication

* 이 글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2003. 12. 19: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표 논문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chang@pusan.ac.kr)

· 접수일 : 2004. 2. 25 · 최초심사일 : 2004. 3. 3 · 최종심사일 : 2004. 3. 4

I. 문제제기

학술 커뮤니케이션(Scholarly Communication)은 학자와 연구자 저자와 독자 그리고 도서관과 대학, 출판사 등 학술 담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역학관계를 매개로 구성되는 하나의 거미줄(web)이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도 가장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는 매체로서 학술지(Journal)를 드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학술지는 학술정보의 교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서, 그리고 지식의 축적 수단으로서 한 학문 분야, 또는 한 나라의 학문 수준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¹⁾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문연구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장치인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궁구하는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개별 학문분야에서도 학술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말하자면, 엄밀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학술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술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 된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술지 평가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핵심은 역시 학문의 발전이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평가는 단순히 학술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학술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학술지 평가는 평가대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단점을 보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²⁾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술지 평가 정책이 앞서 언급한 평가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그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학술지 평가정책에 노정된 불합리성 여부에 관한 논란은 평가 시행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학에도 경쟁논리와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학진의 학술지 평가정책이 지식인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지어 학자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위협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1) 한상완, 박홍석,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1999), p.90.

2) Ibid

예를 들어, 김두식은 학계에 만연한 학술지 등급 높이기와 학술논문 게재를 둘러싼 부조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를 위해 인위적인 학술지 등급 높이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되고 나니 당장 밀어닥친 어려운 숙제가 논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논문을 쓰는 게 문제였다기보다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비학술지’에 실린 이 글은 내용이야 어쨌든 ‘논문’이 아닌 ‘잡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

그 즈음 저는 잘 나가는 어느 학자 한 분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 “《○○○○○》라고 유명한 학술지 들어봤지요? 요즘 학술진흥재단에서 한창 학술지들을 평가해서 등급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다 보니, 이전에 ... 글을 실었던 분들한테 모두 자기가 게재한 글의 3배수되는 분량으로 논문 제목을 적어내라는 부탁이 왔답니다. ...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탈락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이렇게 많이 탈락시켰다는 근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쓰지도 않은 엉터리 논문 제목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 결국 보다 권위 있는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탈락률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걸 위해 역시 있지도 않은 논문 제목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논문 제목들을 3배수로 적어내게 되면 그 ‘학술지’는 탈락률이 무려 70퍼센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술지’가 학술진흥재단의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끝내 저는 진짜 좋은 ‘학술지’에 명함조차 내밀어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법학 논문집(Law Review)들에 실린 개성 있는 저자들의 논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이게 과연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웃기는 질문을 던져본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건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³⁾

이렇듯 정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사업은 학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술지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학계의 학술지 평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매우 긴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 정책이 학술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는 등재 학술지와 이를 생산하는 학술단체, 그리고 평가 주체 기관의 권력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은지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김두식, “초보 ‘철밥통’의 ‘논문’ 데뷔 이야기,” 당대비평, 24(2003), pp.6-7.

II. 학술지 평가의 배경

1. 정보유통: 자유 vs. 통제

지식인은 학문적 지식의 생산을 주도한다. 그들의 지식 생산 활동은 학술 논문의 출판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Publish or perish’라는 문구는 대학가에서 논문 출판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아울러, 학자들의 이러한 출판 활동에 조직적, 정책적 협조를 제공하여 생산된 지식/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촉진하고, 학술정보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일환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학술지평가 사업은 “지식경제시대의 국내 학술연구의 역량 증진과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인정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하여 이들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과 평가 결과의 사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더욱이, 그 결과를 국내의 거의 모든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소속 연구원과 교수의 연구업적을 기증하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면서 논란은 이 평가 사업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 결과가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문제를 비롯한 학자들의 신분 문제와 연결되면서 학진의 등재 학술지로서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교수의 연구 업적이 재단되고 이에 따라 지식인 사회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인에게 있어서 논문이 지식을 생산하는 수단이라면 이렇게 생산된 지식의 유통, 수집, 확산 그리고 소비 과정, 즉 학술 커뮤니케이션(scholarly communication)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학술지(refereed journal)”라고 부르는 매체이다. 이것은 이미 세계 최초의 학술지로 알려져 있는 *Journal des Sçavans*(1665)의 발간 이래 “학술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보의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학술지를 통한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보장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종의 통제장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주로 편집, 또는 심사의 과정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통제의 과정(control process)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근거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학술지라는 매체는 이미 배제의 체제(system of exclusion)를 내화하고 있는 형식이다. 결국 이에 대하여 또 한번의 외부적 여과장치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의 흐름에 개입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두게 되는 것이다.

2. 인용집중의 원리

학진이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의 내용은 1998년 이후 국내에서 간행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재단 자체의 우수 학술지 색인을 만들고, 등재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논문게재율, 정시발행여부, 논문투고자의 전국성과 국제성, 발간횟수 등의 평가항목에 의한 학술지 체계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내용평가를 병행 실시 하고 있으나, 향후,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은 인용계량에 의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학진측은 학술지 평가사업의 결과를 학술단체 지원이나 연구업적 심사에 집중 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정부와 학진이 학술지 선정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자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등재되지 못한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것이 교수업적평가나 신규임용에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오직 학진 등재 학술지만이 정당성을 부여받은 매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⁴⁾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학술지 자체를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도록 유도하고, 외국 기관과의 학술지 공동 편집, 생산, 그리고 외국 학자의 논문을 유치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들이 등장하겠지만, 우선 현단계에서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는 미국 ISI의 SCI 발행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SCI는 미국의 대학도서관 사서였던 가필드(Eugene Garfield)가 1958년에 설립한 민간 기관인 과학정보연구원(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이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인용색인을 수록하여 발행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SCI는 자연과학 분야 저널들에 수록된 논문과 학술회의 초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문학 인용색인(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사회과학 인용색인(SSCI:

4) 이에 따라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역효과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들의 경우 논문 투고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오히려 학술지가 더욱 두꺼워지고, 이로 인한 정보의 과잉 현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5) 이는 학문연구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과학과 공학계의 학술발표회에서는 발표문과 논문은 영어로 쓰고, 발표는 한국어로 하는 기현상이 발생한지 이미 오래이다. 이를 빗대어 학자들은 “나랏말썽이 미국과 달라 서로 사맛디 않는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등과 함께 발간된다

SCI의 등장 배경이 되는 것은 이를테면 상위 20%에 속하는 정보자원이 전체 정보요구의 80%를 충족시킨다는 인용집중의 원리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6만여 종의 과학기술 관련 저널 가운데, 5천 9백여 종의 저널을 SCIE(SCI Expanded)에 수록하고, 이 가운데 약 160개 분야 약 3천 7백여 종의 저널을 SCI 등재 핵심학술지(SCI Core)로 선정한다. 등재저널을 선정하는데는 ISI가 발행하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타의 다양한 범주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들은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대별된다⁶⁾

- 1) 학술지의 기본적 수준(Basic Journal Standard)
 - * 출판시기 준수 여부(Timeliness of publication),
 - * 편집에 있어서 국제적 규정의 준수 여부
 - * 논문 제목, 초록, 주제어의 영문 표기 여부, 저자정보 수록 여부
 - * 심사의 절차와 참고문헌의 완전성 등
- 2) 편집의 내용(Editorial Contents)
 - * 수록논문의 내용과 수준
- 3) 국제적 다양성 (International Diversity)
 - * 투고자와 인용문헌의 지역적 다양성
 - * 국제적 학문 조류와 주제분야의 시의적절성
 - * 지역적 대표성 여부
- 4)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 * 전체 인용율(overall citation rate),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즉시성지수(Immediacy inde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저자와 심사위원의 논문출판 실적
 - * 자기인용률(self-citation rate)

6) "The ISI Database : The Journal Selection Process/Updated in January-2004,"
<<http://www.isinet.com/essays/selectionofmaterialforcoverage/199701.html>>

III. 학술지 평가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앞서 살펴본 대로 학진의 학술지 평가정책에 전범이 되고 있는 SCI의 경우, 학술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인용 빈도이다. 그런데 이 인용빈도는 수록 논문에 대한 평가 지표이며, 그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의 가치와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제도를 원용하여 학진의 국내 학술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SCI와 SCI Expanded가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진 평가의 경우도 2003년 말 현재 212종의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744종이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학진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의 등급만 정할 뿐이고, 인용 색인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비판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SCI 방식을 모델로 삼고있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가 어떠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학문 방법의 다양성 문제

새삼스럽게 정보폭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한 학술정보의 범람은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양상이 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연속간행물은 20만종에 육박한다고 한다.⁷⁾ 학술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자들의 연구실에 배달되는 학술지의 종류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학술지들도 더 두꺼워지고 더욱 자주 발간되곤 하는 것이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학문연구자들의 층이 두터워지고 학문이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분과 학회가 많아졌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간의 국내의 학문풍토를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학연이나 지연 또는 지역에 따른 학술단체의 편중 현상을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담론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연구방법이나 내러티브의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학문적 실험이 시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련 매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진의 학술지 평가사업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재되지 못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학술 연구의 성과

7) Ulrich's Periodicals Index, <<http://www.ulrichsweb.com/ulrichsweb/>>

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저 “잡글”로 취급될 뿐이다.

이는 결국 각 대학의 교수 업적평가는 물론 신입 교수공채나 승진 등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혹은 군소 학술지와 이를 발간하는 중소, 혹은 비주류 학회의 몰락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학계 전반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의 등장과 성장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실기 위하여 특정 학회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자의 연구 업적 평가가 논문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그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 실렸는가 하는 것으로 그 연구의 우수성 여부가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과학문의 다양성과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학문적, 방법적 지향에 대한 포용성이 없는 평가는 학문의 보수화를 촉진하게 된다. 특히 평가의 기준들이 아무래도 대규모 학회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학회들의 경우 원고를 찾아 헤매거나, 논문의 형식이나 편집위원, 운영위원 구성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등재저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학문연구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학회의 외형을 그럴듯하게 갖추려는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 논문에 영문초록과 주제어 병기가 의무화되는 등 형식적 수준이 높아지고, 논문의 탈락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이 강화된다든지 학회지 편집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학회나 연구소들간의 협력과 통합이 증대된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의 역사, 연간 발행횟수, 기관규모, 학술지 배포의 국제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실제 학술지평가에 있어서 소규모 연구나 전통적 방법을 탈피한 학문적 실험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학문 분야별 특성

학문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평가 기준의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양의 경우 SCI가 주로 이용되는 분야는 자연과학 분야이며,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지 않다. 다소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서양의 대학 교수들은 오히려 해당 전공분야에서 발간되는 주요 색인지나 초록지는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SSCI나 A&HCI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학진에서는 모든 분야의 학술지를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과급효과는 학문 분야들간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미치게 되어 실로 학문의 지형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논문 출간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양이야 질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좋은 논문을 많이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문학 분야이거나, 같은 자연과학 분야라도 연구 분야가 실험이 아니라 순수이론 쪽이라면, 일년 내내 연구한 내용으로 좋은 논문 한편 내기도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보다 단행본이 더욱 중요한 자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서양의 경우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서지주해, 번역 등이 여전히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이들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짧은 논문들보다도 오히려 평가절하 된다.

말하자면,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는 학술논문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이며, 연구결과 수명이 짧고 유사연구의 가능성도 높아 출판의 시의성이 중요하고, 연구결과와 적용가능성과 일반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아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논문은 부분 요약이나 예고편에 지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고서야 비로소 연구가 일단락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⁸⁾

또 심지어 자연과학 분야에서조차 SCI 등재 학술지의 학문 주제는 거의 50% 정도가 의·약학과 생명과학 분야 논문들이다. 이는 SCI조차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전 분야의 일률적인 평가 잣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교적 학문의 역사가 짧은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학술지가 더 권위를 갖기도 한다. 즉 전공에 따라 어떤 분야는 상대적으로 SCI 논문 등재가 쉽고 어떤 분야는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SCI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 학자나 제 3세계 학자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인용빈도가 낮다든지 하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⁹⁾

학자의 연구활동은 실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각 학문분야마다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것과는 별도로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화학자의 학술활동과 체육학자의 그것이 동일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기존의 계량적 평가방법 이외에 이렇게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양상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각 분야들에 있어서의 학문활동의 양상이 분명히 다르고 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방법과 논문을 쓰는 방식, 그리고 자료를 인용하는 패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범주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8) 조동일, "국어국문학의 연구업적 평가 총괄 검토," 국어국문학 연구업적 평가의 제문제, 제 46회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3), pp.18-19.

9) 고은미, "SCI의 이면," 진자신문, (2003. 7. 3)

3. 평가방법의 문제

1) 계량화의 문제

ISI와 학진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는 기본적으로 계량화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가령, ISI에서는 인용빈도를 적용한 부가 데이터를 연구자, 논문, 소속 기관 등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즉, 수량화가 질적 평가와 연결되며, 평가가 곧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진에서는 오로지 학술지의 등급만을 정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학진이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몇 편이나 실었는가 하는 수량적 자료만을 연구자에 대한 평가 척도로 삼도록 조장한다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결국, 아무리 좋은 연구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이 학진의 등재 학술지나 등재후보지에 수록되지 못한다면 그 논문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원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등으로 나누는 평가 사업의 취지는 학회의 학술지 발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학술지 평가가 결국 개인의 논문까지도 한꺼번에 평가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2) 평가항목의 문제

평가 방법에 따른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학진의 학술지 평가항목은 다음 페이지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은데, 각 평가단계별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인 경우가 있을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등재후보 선정에서 제외되며, 평가결과 70 점 이상일 경우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다. 또한 SCI와 SCIE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는 별도의 학술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재단의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다.

그런데 이 표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항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학술지의 질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항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배점이 큰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살펴 보겠다.

가. 논문게재율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논문 게재율 항목이 있다. 물론 논문 게재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단일범주로서는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들은 논문게재율(탈락률)을 가장 중요한 범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앞서 소개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논문 탈락률을 높이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가정해 보자면, 가령, 심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권위 있는 학회의 학술지의 경우는 원고가 심사에서 탈락될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연구자들의 투고가 줄어들 게 되고, 따라서 이 학회지는 논문 게재율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게재율이 높다는 것과 그 학회(지)의 연구 수준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표 1> 평가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심사절차	1
		2.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2
		3.편집위원의 연구실적 및 재임기간	3
		4.논문 게재율	7
		5.CYBER 출판여부	3
		6.논문초록 및 주제어 수록여부	4
		7.ISSN 부여	1
		8.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외국어표기	2
		9.편집위원 및 임원 명단 및 소속 명시	1
		10.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2
		11.정시 발행	5
		12.년간 학술지 발간횟수	4
		13.논문 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3
		14.학술지 역사 및 회원수	2
	소계	14개항목	40
학술지 내용평가	분과위원 평가	1.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5
		2.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3.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학술활동	5
		4.투고 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	5
	소계	4개 항목	20
	주제전문가 평가	1.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	20
		2.학술지의 전문성	5
		3.참고문헌(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	5
		4.인쇄의 질 및 지면배정의 효율성	5
		5.논문초록의 질	5
	소계	5개 항목	40

나. 정시발행

정시발행 항목의 경우, 학술지가 규칙적으로 발행되었는가를 평균오차 일수로 계산하는 등의 계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데, 학술지 간행날짜를 잘 맞추는 학술지가 수준이 높은 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에서 비롯된 오류라 할 수 있다. 학술지를 제때 발간하는 것과 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령, 간기를 여름호나 가을호 등으로 표기한 학술지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울러, 발간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부정기 간행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형식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¹⁰⁾

다. 연간 발행회수

연간 발행회수를 중요한 범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 또한 학술지 발행을 지나치게 기계적인 작업으로 해석한 단순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각 학회에서는 학술지의 수요와 공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학술지의 발간 회수를 대체로 연 4회로 조정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학회의 활동이 일년 내내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학술지 평가의 결과가 학진의 학술지 발간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말하자면 학술지 발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1년에 4회 학술지를 발간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라. 논문투고자의 전국성과 국제성

논문투고자의 전국성과 국제성 항목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기존의 서울 중심의 학회 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된 소규모 지역 학회들마저 어쩔 수 없이 전국성을 가진 학회로 변하면서 학회간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연구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지역민의 삶에 밀착된 연구를 수행하던 학자들은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지역 발전에 있어서의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문제도 있다.

마. 학술지 역사 및 회원수

10) 홍윤표, “국어학 연구업적 평가의 제문제,” 국어국문학 연구업적 평가의 제문제, 제 46회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3), pp.38-39.

학술지의 역사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학문의 새로운 경향을 수용하여 발간하는 학술지의 황성화를 저해하게 된다. 또한 회원수가 많을수록 평가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회활동의 역동성 여부는 회원 수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결국 이러한 항목들은 규모가 작은 연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알찬 연구들을 지속하던 학회들의 전통은 사라지고 학문 발전과는 무관하게 외형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¹¹⁾

3) 평가방법의 문제

분과 위원 평가와 주제 전문가 평가에 있어서도 누가 심사를 담당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술지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별 학문 분야들마다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배경에 따라 평가의 결과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콜(Kohl)과 데이비스(Davis)는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에 소속된 주요 도서관의 관장들과 문헌정보학과의 학과장/ 학장들(Deans of LIS Schools)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 분야의 영향력 있는 학술지의 수준을 가늠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¹²⁾

하워드(Howard)와 니콜라이(Nikolai)는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교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아울러 이 그룹들을 다시 조교수 대 정교수의 두 그룹으로 구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회계학분야에 있어서의 학술지 평가결과의 편차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지향(orientation)에 따라, 그리고 직급이나 개인의 경력에 따라 평가결과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¹³⁾

또, 말로운(Malouin)과 아우트레빌(Outreville)은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 심사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학술지 평가의 결과를 상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⁴⁾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심사자의 사회, 문화적 조건과 현재적 위치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한 편차로 작용하고

11) 상계논문, pp.39-41.

12) David F. Kohl and Charles H. Davis, "Rating of Journals by ARL Library Directors and Dea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6(1985), pp.40-47.

13) Thomas P. Howard and Loren A. Nikolai, "Attitude Measurement and Perceptions of Accounting Faculty Publication Outlets," *Accounting Review*, 58(1983), pp.765-776.

14) Jean-Louis Malouin and J. Francois Outreville, "The Relative Impact of Economics Journal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39(1987), pp.267-277.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학술지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다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입각한 자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학회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평가방식은 학회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권위주의, 관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각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를 등재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간행횟수를 늘이거나 회원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학회의 학술지가 등재지로 평가받기 위한 노력은 역시 학회지 발간 지원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학진에 의하면, 학술지 평가의 결과는 1) 학술연구비 지원 및 연구결과평가에 연계하고 2)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에 연계하며 3) 학술연구업적 평가자료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학술지의 등재여부가 곧 학회의 권위와 명예를 판가름하는 “정부의 인증서”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서 결국 학술지 선정에 있어서 회원이나 논문심사위원 수 등의 가시적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학술단체들의 공격적 회원 배가 운동과 같은 편법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회들이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학진의 등재학술지가 되려면 전국 규모의 대규모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라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 구성원의 동질성을 자랑하는 소규모 학회나 연구회는 사라지고, 전국 규모의 대형 학회들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학회의 회원수, 회원의 지역적 분포 등을 안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대학(연구소) 논문집과 기념논문집,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적 학술지 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들은 배포의 범위가 넓고 수록 논문도 많으며,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자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학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혹은 학문성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현장 지향성과 문체의 해방 등 의미 있는 학문적 실험을 통하여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대중적 학술지들은 상대적으로 등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문의 대중화를 통하여 학자와 일반인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학술지가 고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이미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학자들의 연구 진작과 국내학문의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한 학술지 평가사업이 오히려 현실은 외면하고 강단에만 안주하는 아카데미즘의 자폐증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효율과 경쟁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평가는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나 평가의 최종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권위라는 것은 그 학문분야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구축되는 것이지, 외부의 권력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활용의 문제

평가 범주의 신뢰도와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자연과학과 일부 공학분야의 경우 SCI가 여전히 대단히 훌륭한 연구 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적 연구동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도서관관과 정보센터에서 학술지의 선호도와 비중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분석의 틀이기도 하다. 문제는 SCI가 교수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논문의 인용도와 인용 패턴의 분석을 통해 주제 분야의 세계적 연구 동향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학술정보의 제공이 그 목적인 것이다.

비교적 상세한 정보와 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SCI와 그 등재 학술지의 경우가 이렇진대, 단순히 학문 전 분야의 학술지를 등재, 등재후보, 비등재로 구분하는 학진의 학술지 평가의 경우는 그 활용에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앞서 언급한 다양한 범주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에 임한다고 해도 학진에 등재된 학술지들만이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라고 할 수 없으며, 수록 논문들이 모두 우수한 논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교수들의 개인 연구 업적 평가를 위한 유일한 잣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계와 정부의 이러한 “등재 우선주의”는 이미 ISI로부터 경고의 대상이 된 바도 있다.¹⁵⁾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대학들이 이를 금과옥조로 만드는 것은 학술지 평가의 결과 등재리스트에 포함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의하면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논문의 인용 빈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15) “집중진단 SCI,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신문(2002. 4. 29)

결국 문제는 정부당국과 대학들의 목표 지향적 학술정책의 결과 학술지 평가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은 언론일 것이다. 국내 언론 매체들은 SCI나 학진의 등재 저널 리스트에 수록된 논문의 수가 “대학과 교수가 연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한다. 거기다 국내 대학별 순위와 소속 교수 1인당 논문 발행편수 등의 지표까지 덧붙여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 이걸 마치 학자들이 논문수(!)를 계산해서 상을 주는 학문의 올림픽에라도 출전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학문에서 마저 올림픽 대표 선수선발과 같은 논리가 동원되면서 사회전반의 지적 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채 소수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삼관왕, 사관왕이 되면 열광하고 포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V. 맺으며

지식은 그것이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지식은 권력과 결합을 통하여 지배의 권위를 획득한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문화적 기제는 권력과 결합된 지식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조작된 장치들일 뿐이다. 말하자면, 지식은 항상 권력의 획득, 즉 타인의 마음과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연관되어 왔다. 즉, 정치적 맥락이 항상 지식의 생산, 조직, 보존 그리고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에는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권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생산한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식체계의 구축양상이 결정된다. 지식권력은 사회 내에서 어떠한 특징의 주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식권력에 수반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합하지 않는 존재를 제외시키거나 다른 언술을 침묵시킴으로서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푸코에 의하면, 이러한 배제의 체계(system of exclusion)는 교육, 출판, 도서관 학술단체 같은 지식을 매개로 한 사회 제도가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기반을 공고하게 한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체계에 개입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권

16) Thomas E. Nisonger, "The Stability of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Journal Citation Reports Data for Journal Rankings in Three Discipl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ometrics and Informetrics*, 1(1995), pp.139-49.

17) Michel Foucault,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1972), p.219.

력화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정부기구가 학술담론의 도구를 평가하고, 학술담론의 장에 수용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부과함으로써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폐해는 불을 보듯 확연하다. 학술진흥재단의 정책이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주류에 편승하지 않는 주변부 학문, 지역 중심적 학문의 설 자리를 없애버린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꼭 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 시행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해서도 연구의 도구를 소속 교수의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자대로 남용하고 있는 현재의 활용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경쟁력”이 대학과 학계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진의 학술지 평가사업이 교수 업적평가나 신입교수임용의 준거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학계는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수록하는 것만이 학문 연구의 수준과 학자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자격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계약제 연봉제까지 시행되는 마당에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요컨대, 학문,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해석적 관점(interpretive perspectives)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즉, 학문적 상상력이다. 이러한 학문적 상상력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제약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학문과 진리의 탐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자유란 결국 차이(difference)의 인정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학문 풍토의 차이, 그리고 자연과학, 공학 분야와 인문/사회과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학문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여 서열화하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우리 학문의 기반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 고은미. "SCI의 이면." 전자신문 (2003. 7. 3)
- 김두식. "초보 '철밥통'의 '논문' 데뷔 이야기." 당대비평, 24(2003), pp.6-7.
- 조동일. "국어국문학의 연구업적 평가 총괄 검토." 국어국문학 연구업적 평가의 제문제. 제 46회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03) pp.13-28.
- 한상완, 박홍석.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2(1999)
- 홍윤표. "국어학 연구업적 평가의 제문제." 국어국문학 연구업적 평가의 제문제. 제 46회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03), pp.29-48.
- "집중진단 SCI,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신문 (2002. 4. 29)
- Foucault, Michel.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 Vintage, 1972.
- Howard, Thomas P. and Loren A. Nikolai. "Attitude Measurement and Perceptions of Accounting Faculty Publication Outlets." *Accounting Review*, Vol.58(1983), pp.765-776.
- Kohl, David F. and Charles H. Davis. "Rating of Journals by ARL Library Directors and Dea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46(1985), pp.40-47.
- Malouin, Jean-Louis and J. Francois Outreville. "The Relative Impact of Economics Journal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39(1987), pp.267-277
- Nisonger, Thomas E. "The Stability of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Journal Citation Reports Data for Journal Rankings in Three Discipl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ometrics and Informetrics*, Vol.1(1995), pp.139-49.